

## 대학생의 부애착이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권 효 주                      김 민 수                      김 영 근<sup>†</sup>  
인제대학교 / 석사과정      인제대학교 / 학사              인제대학교 / 부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애착이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인간 외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3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외상경험 질문지,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 정서접근적 대처 척도,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 자의식적 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상담학적 함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애착, 대인간 외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수치심

\* 본 논문은 2022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제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본 논문은 전국대학상담학협의회에서 주최한 2022년 학부생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연구임.

† 교신저자 : 김영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Tel: 055-320-4024, E-mail: ykkim@inje.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외상사건은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만연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성인의 71.9%가 일생 동안 하나 이상의 외상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했으며(서영석 외, 2012), 해외연구에서는 외상경험을 보고한 응답자가 80% 이상일 정도로 삶에서 외상은 불가피한 요소이다(Frazier et al., 2009; Watson & Haynes, 2007). 외상사건 경험자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상사건에서 점차 회복하지만, 그중 10~30%는 외상 관련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slau et al., 1991; Cusack et al., 2006; Rothbaum et al., 1992). 대표적인 정신장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며, 우울 장애 등의 다른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다(은헌정 외, 2001; Katz et al., 2002; Nader & Pynoos, 1990).

DSM-5에 따르면, 외상사건은 실제적·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가까운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한 경우와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APA, 2013). Allen(2005)은 외상사건의 유형을 대인관계 내에서 발생한 외상과 대인관계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충격적인 외상사건을 대인외상(interpersonal trauma)이라 하였다. 가족 갈등, 이혼, 질병에 의한 가족의 죽음, 친구의 배신, 중요한 인물과의 다툼 등의 외상사건이 이에 포함된다(박은아, 2015). 실제로 대인간 외상사건은 상담장면에 찾아오는 개인의 주호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사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어 대인 외적인 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장진이, 2010). 그러나

국내 외상 연구에서 대인외상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희경, 2012; 박경은, 김선영, 2019; 최승미, 2008). 또한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연이나 자연재해 등의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보다 정신과적 도움을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len, 2005). 따라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상사건에 비해 등한시되고 있는 대인간 외상사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rikson(1959)은 성인기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제안했다. 대학생 시기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의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는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인간 외상경험은 특히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 무려 97.9%가 대인간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지영 외, 2015), 실제 상담에 찾아오는 대학생의 주호소문제는 주로 대인간 외상경험과 관련이 있다(이정아, 박경, 2019). 대학생 시기에 경험한 대인간 외상사건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 경험하였던 외상 또한 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은 삶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Finzi et al., 2003), 특히 주양육자에 의한 외상은 자아탄력성, 자신에 대한 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추후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연관된다(강민정, 조현주, 2021; 백지숙, 2000; 소찬은, 한세영, 2021; Bowlby, 1969). 또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배미향, 조영아, 2014; 이태영, 심혜숙, 2011; 최은영, 안현의, 2011). 즉, 대인간 외상경험을 가지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인 대학생 시기를 맞이하게 된 사람은 친밀감 형성을 통한 대인관계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지며,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실패 경험은 이들에게 있어 또 다른 대인간 외상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경험한 대인간 외상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인간 외상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함이 시사된다.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앞서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PTSD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대인간 외상에 노출된 사람들은 PTSD의 진단과 치료에서 주요한 특징인 과각성, 재경험 증상, 회피 및 정서적 무감각,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고, 아동기의 대인관계 외상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높은 PTSD 증상을 보였다(안현의, 2007; Schaffe & McCanne, 199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정의는 DSM-IV(APA, 1994)에서는 자극이 없거나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이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등의 과잉 경계 상태인 ‘과각성’, 불수의적이고 침투적으로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침습’, 외상사건과 관련된 기억, 감정,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극과 단서들을 피하려는 ‘회피’의 세 가지 증상으로 구성되었고, DSM-5(APA, 2013)에서는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라는 증상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4가지 증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에 PTSD로 진

단받게 된다(APA, 2013).

부모애착은 PTSD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 Kilmer(2006)는 애착유형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건에 대한 반응과 상호작용을 하여 사건이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owlby의 애착이론(1988)에 따르면 생애 초기 가까운 인물과 강한 정서를 수반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애착이라 하였다. 영아는 양육자와의 초기경험들을 겪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이해와 기대, 각본의 역할을 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킨다. 즉, 부모와의 초기경험에서 비롯된 애착에 따른 부모-자녀의 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최연화, 2012). 그간의 연구에서는 상당수가 부모애착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로는 부애착과 모애착이 특정 변인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부모애착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할 때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애착과 모애착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선영운, 2016; Bridges et al., 1988; Grossmann et al., 2002). 따라서 부모애착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기보다는 부·모애착으로 구분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연구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애착을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애착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전담하여 모애착이 매우 중시되었기 때문이지만, 최근에는 어머니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아버지와 자녀

의 애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김시형 외, 2018; Owen et al., 1984). 이는 세태에 맞게 연구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나 부모애착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모애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애착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 부애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개인의 애착유형에 따라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트라우마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해야 할지 영향을 준다(Besser & Neria, 2012; Elwood & Williams, 2007). 국내연구에서는 불안정 부모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PTSD 증상이 더 높아지는 반면 외상 후 성장은 줄어든다고 하였고(김시형 외, 2019), 해외연구에서는 애착 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겪을 때 주로 PTSD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et al., 1999). 이와 같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애착이 많이 언급되었으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애착에 관한 연구였다. 부모애착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선행연구는 소수였는데 이마저도 부모애착보다는 성인애착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부애착뿐만 아니라 부모애착과 PTSD 증상에 관한 연구조차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해외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An et al., 2018; Benoit et al., 2010). 또한 부모애착은 자녀에게 내적작동모델이라는 정신적 표상을 형성시키는데 이는 주로 자신과 타인 또는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와 안정애착

인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와 인식으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대인관계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전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아 외, 2016; 이정애, 정영인, 2018; 전화연, 2006; 최문정, 2006). 특히 부모애착이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신적 표상은 성인애착이다(권희선, 한기백, 2019). 성인애착은 PTSD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앞서 언급된 변인이다. 이는 부모애착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은 성인애착이 또 다시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부모애착이 자녀의 PTSD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PTSD와 같은 외상 관련 증상들은 사건 당시의 충격보다는 그 이후에 자신의 외상경험과 그에 대한 정서반응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DePrince et al., 2011). Greenberg와 Paivio(1997)에 따르면 정서란 무의식적인 감정에 대한 의식적인 결과로 개인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정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에 따른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상황에 맞는 대처와 적응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Salovey & Mayer, 1990). 정서가 PTSD 증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 속 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정서인식과 그러한 정서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정서처리, 상황에 맞게 자신의 내적 욕구를 드러내는 정서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상과 관련된 정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정서기

반적 대처방식이다(서영주 외, 2020; 이애영, 김영근, 2020).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은 고통스러운 경험의 허용에 근거(Greenberg & Safran, 1987)하여 정서인식, 정서처리, 정서표현을 하위요인으로 두었다.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현재 일어나는 정서반응을 알아차리고 언어적인 정의를 통해 각각의 정서상태에 대해 확인하는 심리적 과정이다(Salovey et al., 1995). 정서처리는 정서에 관한 의미를 탐색해 나가고 그 정서에 관해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고, 정서표현은 정서경험을 적극적으로 상징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시도이다(Stanton et al., 2000).

주양육자가 자녀가 표현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인정해주고 수용한다면 자녀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적응적으로 발달하고, 자녀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억압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Cassidy, 2008). 인간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정서조절능력(지은혜, 조용래, 2015)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애착대상이 정서조절자의 역할을 하고, 이때 애착대상의 반응과 허용의 정도에 따라 애착대상의 조절기능이 유아에게 내면화되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게 된다(Crawford et al., 2007; Sroufe, 2005). 즉, 부모애착은 자녀의 정서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안정애착 아동은 불안정애착 아동보다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높았다(Allen, 2018; Cassidy, 2008). 반면 아

버지와 애착이 낮을수록 자녀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김현아, 장혜인, 2016). 또한 부·모애착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주된 영향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모애착은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에 중요한 정서적 작용을 하였고, 부애착은 자녀의 위기 대처능력 향상에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n et al., 2008; Paterson et al., 1995).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지내는 시간과 관계 없이 강도가 매우 강하고 집중적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과 차이가 존재하고(Parke & McDowell, 1997), 정서 및 행동조절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문예은, 이주연,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봤을 때 모애착보다는 부애착이 자녀의 대처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부애착은 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자녀의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심각도는 높게 지각된 외상 관련 정서, 정서수용과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효과적인 정서조절방략에 대한 제한된 접근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안현의 외, 2012; Tull et al., 2007). 특히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PTSD 증상이 덜 심각하게 나타난 반면,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PTSD 증상이 더 심각해지고 병리적으로 나타났다(유지현, 2006; Finn, 1985; Kemp et al., 1995).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추구와 같은 접근지향적 대처방식과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정신적 이탈과 같은 회피적 대처방식과는 관

계가 없다(Stanton et al., 2000). 즉, 정서기반대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방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PTSD 증상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을 하위요인으로 둔 정서지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Salovey et al., 1999).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경험에 회피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PTSD 증상을 덜 경험하게 되지만,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상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PTSD 증상을 더 많이 겪게 된다(이지영, 2007; Bates, 2005; Hunt & Evans, 2004). 이처럼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은 PTSD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을 포함하지 않은 정서접근적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서접근적 대처방식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PTSD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고 PTSD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또 하나 있다. Lewis 등(2008)에 따르면 자의식적 정서는 자아와 관련된 평가 감정을 의미하며, 생후 36-48개월 이후에 발현되는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정서이다. 자의식적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을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에서 자신 내면의 규칙을 지키거나 개인이 내세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

면 자부심 같은 긍정적인 자의식적 정서가 형성되지만, 반대의 경우 부정적인 자의식적 정서가 형성된다(Lewis et al., 2008). Tangney와 Fischer(1995)는 대표적인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수치심이라고 하였다. 수치심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형성되는 감정이다(Wiklander et al., 2003; Wilson, 2000). 이는 자신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포함하는 감정이며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에게 있어 더욱 핵심적인 정서이다(Tangney et al., 2000). 이러한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자아정체성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후 수치심은 점점 자동화되면서 어떤 특정한 대인관계 상황이 아니더라도 유발된다(Tangney et al., 1996). 더 나아가 수치심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면 개인의 삶에 정신병리적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Cibich et al., 2016; Kim et al., 2011).

Lewis(1987)는 수치심의 가장 큰 원인을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철회로 보았다. 유아는 생후 18-36개월 사이에 자기를 지각하며 자의식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해당 시기에 초기 양육자가 유아와의 눈맞춤을 지속적으로 피하면 유아는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중 수치심 전조의 불안을 보이게 된다. 수치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봤을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과 관심이 낮고 통제와 과보호 수준이 높다면 자녀는 수치심의 수준이 높았고(Cook, 1991),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인 비난과 처벌, 창피를 준다면 자녀는 자신을 부적절하고 잘못된 존재라고 판단하여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Allaman et al., 1972). 부모애착과 수치심이 서로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모애착보다는 부애착이 수

치심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보운, 2009; 김남연, 양난미, 2012; 김민정, 2016).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수치심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기효정, 홍혜영, 2016; 김지은, 2021; 이서란, 2014)도 보고되어 부애착과 수치심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또는 성인애착과 수치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부모애착과 수치심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애착은 수치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시사되기에 이를 연구에서 다루어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수치심은 부애착뿐만이 아니라 PTSD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상사건을 겪고 난 후 외상 경험을 떠올리며 그 기억을 부정적으로 편향되게 평가하여 생기는 자의식적 정서의 정도가 PTSD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DePrince et al., 2011), 이러한 자의식적 부정정서는 특히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깊은 연관이 있다. 대인간 외상경험이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De Francis, 1969; Feiring et al., 2002; Pitts & Schwartz, 1997), 비대인간 외상과 비교했을 때 대인간 외상이 수치심 정서를 더 높게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mstadter & Vernon, 2008).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 분노, 재희생, 대인관계 문제, 가족 갈등, 그리고 PTSD 증상을 더 심하게 경험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Andrews, 1995; Gilbert et al., 1996; Kessler & Bieschke, 1999; Kim et al., 2011). 심중은(1999)

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 하는 등 회피행동을 하는데 이는 PTSD의 주요증상 중 하나인 회피에 해당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수치심의 정도에 따라 PTSD 증상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치심은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 중 하나인 정서인식 명확성과 수치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정서인식 명확성이 수치심의 전제 변인일 경우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은 수치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적응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이 밝혀졌다(심명자, 2020; 원강연, 김정규, 2019).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자신의 정서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통해 수치심 수준을 낮출 수 있지만,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는 정서회피로 인해 수치심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키게 된다(정은영, 신희천, 2014; 홍지선, 김수임, 2017). 다음으로 다른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윤희옥 외, 2010),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이 수치심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문선, 이영순, 2011).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수치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수치심 자체는 모호하고 조직화 되지 않으며 혼란된 형태로 경험되기 때문에(Lee & Wheeler, 2013) 수치심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서이다. 원강연과 김정규(2019)의 주장처럼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수치심을 탐색하고 치료적 개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관계를

연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변인들 간에 관련성이 짙은 점들을 종합하였을 때,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 매개할 가능성이 시사되며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영향을 동시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부애착과 PTSD, 수치심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비하고 더 나아가 정서기반적 대처를 포함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인간 외상 문제와 부애착에 대한 국내외의 사건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 애착 수준에서 비롯된 PTSD 증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기에 이를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을 중점으로 두고 이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부애착, PTSD 증상,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수치심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의 PTSD 증상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치

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후 상담자에게 대인간 외상경험을 가진 내담자의 치료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매개하는가?

둘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하는가?

셋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 이중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5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남, 여)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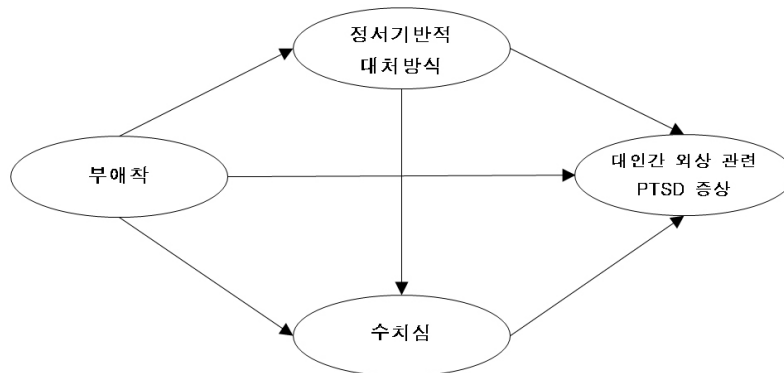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라인 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집과 직접 설문지를 돌리는 오프라인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설문지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안내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소요시간과 설문지 작성 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347부,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85부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432부의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와 비대인 외상사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52부를 합친 총 59부를 제외하고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37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 중 남학생은 92명(24.7%), 여학생은 281명(75.3%)이었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21.9세( $SD=2.42$ )였다. 학년은 4학년이 158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 90명(24.1%), 1학년 70명(18.8%), 2학년 55명(14.7%) 순으로 많았다.

#### 측정 도구

##### 외상사건 경험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의 시기 및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송승훈 등(2009)이 제작하고 신선영, 정남운(2012)이 보완하여 제작한 외상경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 후 16가지의 외상사건 목록 안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16가지 외상사건 범주 중에서 참가자가 표시한 사건들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외상사건'이라 정의했다. 이후 모든 문항들에 있어서 외상사건을 떠올리며 응답하라

고 지시하였고, 외상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 7가지 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인 이외의 다른 인물과 관련된 외상사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인간 외상 경험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 외상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와 최근을 나누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1점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 PTSD 증상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등(1979)이 개발한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를 은현정 등(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외상사건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고통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침습 6문항, 과각성 6문항, 회피 5문항,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헤리 증상 5문항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전혀 없다' 0점에서 '많이 있다'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건의 충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은현정 등(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IES-R-K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 부애착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PPA)를 옥정(1998)이 수정한 개정본(IPPA-R)을 부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또래애착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 각각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PPA-R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의 3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애착 척도의 부애착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는 정서처리와 정서표현 정도의 측정을 위해 Stanton 등(2000)이 개발한 정서접근적 대처 척도(EACS)를 강성록, 양재원(2015)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EACS는 정서처리, 정서표현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처리, 정서표현은 각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정서처리와 정서표현 정도가 높고 정서접근적 대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성록과 양재원(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EAC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 이훈구(199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특질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했다. TMMS는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 기대 총 3가지 하위요인을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의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이수정,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TMM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 수치심

본 연구에서는 Tangney 등(2000)에 의하여 개발된 자의식적 정서 척도(TOSCA-3)를 송수민(2007)이 TOSCA-3에 추가된 시나리오 문항을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TOSCA-3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한 후, 각 상황에 대한 자의식적 정서를 나타내는 반응들을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OSCA-3의 수치심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상황들 속에서는 수치심, 죄책감, 외면화, 분리/무관심, 자부심을 묻는 문항들이 제시되며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심한 것이다. 총 16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시나리오 11개와 긍정적 시나리오 5개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에서 수치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치심은 .86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로 부애착, 수치심,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PTSD 증상의 관계를 알기 위해 SPSS 27.0,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측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표본이 나타내는 부애착, 수치심, 정서기반적 대처, PTSD의 정규성과 척도들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위한 Anderson과 Gerbing (1988)의 분석방법을 통해 2단계로 나누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적합도를 확인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각 변인들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팬텀(phantom)변수를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과정을 통해 최종모형의 통계적 유의성과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 간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애착,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수치심, PTSD 증상의 정규성과 경향성의 검증을 위해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PTSD 증상은 부애착( $r=-.30, p<.001$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r=-.14, p<.01$ )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수치심( $r=.35, p<.001$ )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애착은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r=.21, p<.001$ )과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수치심( $r=-.26, p<.001$ )과는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다.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은 수치심( $r=-.28, p<.001$ )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단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치심

표 1-1. 변인 간 기술통계

		M	SD	왜도	첨도
PTSD 증상	침습	2.80	1.08	0.15	-1.10
	회피	2.86	1.04	-0.01	-1.01
	과각성	2.37	1.15	0.50	-0.90
부애착	F신뢰	3.39	0.96	-0.46	-0.63
	F소통	2.91	1.06	0.02	-0.92
	F소외	3.25	0.81	-0.36	-0.55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정서처리	3.18	0.64	-0.59	-0.06
	정서표현	2.74	0.73	-0.18	-0.77
	정서인식	3.32	0.60	0.12	0.13
수치심	수치1	2.99	0.85	-0.10	-0.41
	수치2	2.71	0.86	0.10	-0.51
	수치3	2.96	0.83	-0.06	-0.45

표 1-2. 변인 간 상관관계

상관계수															
	PTSD	침습	회피	과각성	부애착	F신뢰	F소통	F소외	정서기반	E처리	E표현	E인식	수치1	수치2	수치3
PTSD	1														
침습	.94***	1													
회피	.91***	.76***	1												
과각성	.93***	.84***	.76***	1											
부애착	-.30***	-.28***	-.25***	-.31***	1										
F신뢰	-.30***	-.28***	-.25***	-.32***	.95***	1									
F소통	-.23***	-.21***	-.19***	-.24***	.93***	.84***	1								
F소외	-.28***	-.26***	-.25***	-.26***	.68***	.55***	.47***	1							
정서기반	-.14**	-.11*	-.14**	-.15**	.21***	.18**	.22***	.16**	1						
E처리	-.13*	-.08	-.13*	-.15**	.17**	.16**	.18**	.08	.78***	1					
E표현	-.10	-.08	-.10*	-.09	.20***	.15**	.22***	.13*	.82***	.54***	1				
E인식	-.12*	-.11*	-.10	-.13*	.15**	.12*	.13*	.16**	.81***	.43***	.47***	1			
수치심	.35***	.33***	.29***	.35***	-.26***	-.25***	-.19***	-.27***	-.28***	-.24***	-.23***	-.21***	1		
수치1	.30***	.31***	.23***	.31***	-.26***	-.24***	-.21***	-.25***	-.27***	-.23***	-.22***	-.20***	.90***	1	
수치2	.34***	.31***	.29***	.35***	-.25***	-.24***	-.18***	-.28***	-.22***	-.18**	-.16**	-.19***	.88***	.72***	1
수치3	.28***	.26***	.25***	.29***	-.19***	-.19***	-.14**	-.20***	-.26***	-.23***	-.23***	-.18**	.90***	.70***	.66***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	df	p	NFI	IFI	CFI	TLI	RMSEA
측정모형	67.36*	48	.03	.97	.99	.99	.99	.04

주. \*  $p < .05$

표 3.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beta(B)$	S.E.	C.R.	p
PTSD 증상	침습	.91(1.00)			
	회피	.82(0.87)	.04	21.84	***
	과각성	.93(1.08)	.04	26.69	***
부애착	F신뢰	.98(1.00)			
	F소통	.86(0.96)	.05	19.06	***
	F소외	.56(0.48)	.04	11.43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정서처리	.71(1.00)			
	정서표현	.76(1.21)	.13	9.58	***
	정서인식	.61(0.81)	.09	9.17	***
수치심	수치1	.87(1.00)			
	수치2	.82(.96)	.05	17.84	***
	수치3	.81(.91)	.05	17.44	***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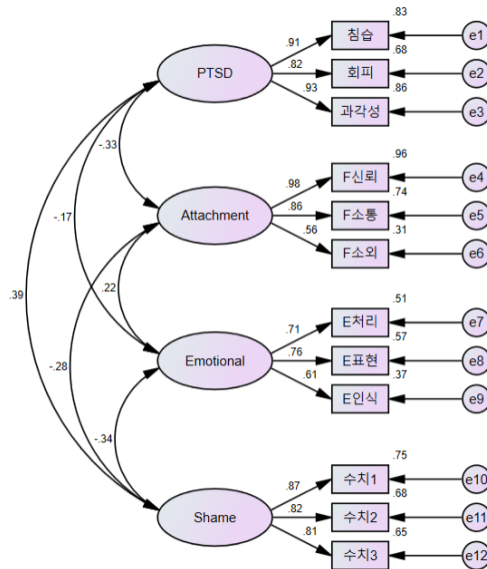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의 경우 Russell 등(1998)의 제안을 따라 3개의 문항꾸러미(item-parcel)를 제작하였다. 이때 문항꾸러미는 요인부하량을 균등하게 갖도록 하였다. 왜도와 첨도를 측정된 결과, 절댓값이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모든 변인은 정규분포를 충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검정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MIN( $\chi^2$ ), CFI, RMSEA 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모형의 명료성과 설명력을 고려하기 위해 TLI와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모델 적합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 그림 2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48, N=373)=67.36$ , NFI=.97, IFI=.99, CFI=.99, TLI=.99, RMSEA=.04로 좋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적재량은 PTSD 증상 .82~.93, 부애착 .56~.98,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61~.76, 수치심 .81~.87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부애착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 각각 매개하여 가는 부분매개모형과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을 매개하는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와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직접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애착은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beta=.22, p<.001$ )에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수치심( $\beta=-.21, p<.001$ )과 PTSD 증상( $\beta=-.24, p<.001$ )에는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은 수치심( $\beta=-.30, p<.001$ )에는 부적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TSD 증상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은 PTSD 증상( $\beta=.33, p<.001$ )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표 4. 연구모형의 경로

경로			B	$\beta$	S.E.	C.R.
연구 모형	부애착	→ 정서기반적 대처	.11	.22	.03	3.57***
	부애착	→ 수치심	-.17	-.21	.04	-3.78***
	부애착	→ PTSD 증상	-.25	-.24	.06	-4.43***
	정서기반적 대처	→ 수치심	-.48	-.30	.11	-4.52***
	정서기반적 대처	→ PTSD 증상	-.01	-.00	.14	-.05
	수치심	→ PTSD 증상	.43	.33	.08	5.43***

주.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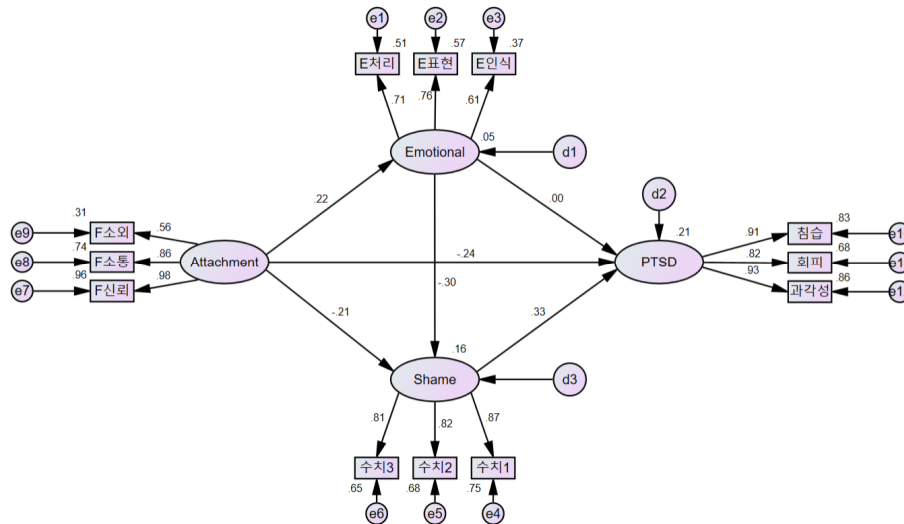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경로계수

Taylor 등(2008)이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정 절차를 시행하였다. 이에 수집된 자료(N=373)에서 표본 2000개를 생성하여 모수추정에 사용하였고, 신뢰구간 95%에서 각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PTSD 증상으로 가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애착과 수치심 간의 간접효과( $\beta=-.07, p<.01$ ), 부애착과 PTSD 증상 간의 간접효과( $\beta=-.09, p<.01$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PTSD 증상 간의 간접효과( $\beta=-.10, p<.01$ )는 그 값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랩의 절차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애착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22**	-	.22**
	→ 수치심	-.21**	-.07**	-.28**
	→ PTSD 증상	-.24**	-.09**	-.33**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 수치심	-.30**	-	-.30**
	→ PTSD 증상	-.00	-.10**	-
수치심	→ PTSD 증상	.33**	-	.33**

주. \*\*  $p<.01$

표 6.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애착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 PTSD 증상	-.00	{-.03, .03}
부애착 → 수치심 → PTSD 증상	-.07**	{-.12, -.03}
부애착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 수치심 → PTSD 증상	-.02**	{-.05, -.01}

주.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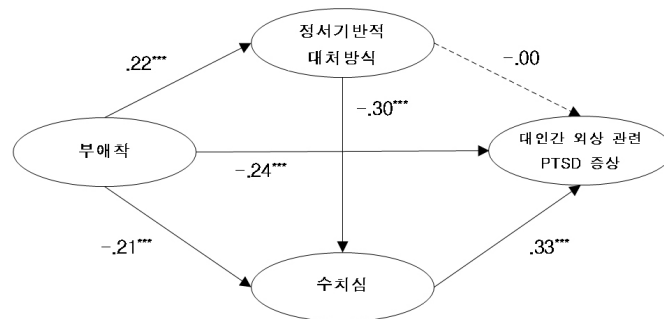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

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였다. 각 변인들의 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팬텀변수를 활용한 개별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애착 → 정서기반적 대처방식 → PTSD 증상’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그림 4로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애착 수준이 대인간 외상과 관련된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네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의 PTSD 증상에 개입 및 예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인간 외상 경험이 있는 37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애착과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애착이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두 변인 사이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자녀 간에 높은 수준의 애착이 형성된 경우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고 처리하는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상황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은 PTSD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부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자녀는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정서조절을 잘하며(안숙영, 2006)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녀는 정서활용을 잘한다는 연구결과(양영미, 2003)와 일치하고,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방식과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할수록 PTSD 증상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이지영, 2007; Kemp et al., 1995)와도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두 변인 사이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외상사건과 차별되는 대인간 외상사건의 특수성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동일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상황이 가진 특수성에 따라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Folkman & Moskowitz, 2004). 김소연 등(2015)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접근적 대처방식과 행동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이 심리적 외상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심리적 부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간 외상사건이 비대인 외상사건보다 PTSD 증상, 정서조절 곤란, 우울증 등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유증도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현의, 주혜선, 2011; 이수림, 2013; Cloitre et

al., 2010). 따라서 비대인 외상에 비해 개인에게 미치는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이 큰 대인간 외상사건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부애착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른 외상사건에 비해 외상의 정도가 심각한 대인간 외상사건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기능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어진다.

둘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치심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애착이 PTSD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개인의 정서적 요인을 통하여 PTSD 증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자녀가 수치심을 과도하게 내재화하게 되고(Greenberg & Paivio, 1997) 부애착이 수치심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남연, 양난미, 2012; 김민정, 2016)와 일치하고, 수치심이 뒤로 물러나 숨고 싶은 행위 경향성을 유발하며 PTSD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심종은, 이영호, 2000; 오유진, 2006; 이정아, 박경, 2019). 부애착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내재화하는 과정 속에서 회피하는 경향성이 유발되어 일상생활 속 문제상황에서 회피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하였을 때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PTSD 증상의 정도는 더 심각해지게 된다. 반대로 부애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경우 자녀는 자신을 적절히 기능하는

존재로 판단하여 수치심 수준이 낮게 형성되고 그로 인해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PTSD 증상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게 된다.

셋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애착이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을 순차적으로 거쳐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애착이 높게 형성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여 정서처리의 어려움을 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의식적 부정정서인 수치심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되어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하여도 PTSD 증상이 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촉발된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였다는 연구결과(Salovey et al., 1995)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할수록 수치심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윤희옥 외, 2010; 정은영, 신희천, 2014; 홍지선, 김수임, 2017)를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애착이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PTSD 증상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애착으로 형성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수치심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PTSD 증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부애착 수준에 따른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에 개입하고

예방함에 있어 그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과 개인의 정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각각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학생의 PTSD 증상의 원인과 치료적 개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와 치료적 개입 방안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PTSD 증상을 바라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들을 발견하였다.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성인애착을 중점으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연구방향에서 벗어나 부모애착, 더 나아가 부애착이라는 새로운 주요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부모애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모애착에 초점을 두거나 구분하지 않고 부모애착을 하나의 변인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부애착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과 대인간 외상사건과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상담장면에서 다룰 때 부애착이 낮게 형성된 내담자를 대상으로 개인상담 혹은 가족상담을 통해 부애착의 안정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온 부애착을 상담에서 다루기란 매우 어려우며 장기간의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효과 또한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부애착만을 중점에 두고 개입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함께 다루어주는 것이 효과적

인 상담의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변인들은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의 PTSD 증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나아가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PTSD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부모-자녀 간에 형성된 애착이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할 외상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대처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알리는 부모교육을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둘째, 부애착과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두 변인 사이에서 수치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수치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상담장면에서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대인간 외상 관련 PTSD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장면에서 수치심을 직접 다루게 된다면 내담자가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하였더라도 수치심을 내재화하는 수준이 낮아질뿐더러 외상경험을 회피하지 않게 되어 PTSD 증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지향적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때 부모애착 수준이 낮은 사람은 수치심을 내재화하여 부적응적인 정서도식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에 접

근하여 수정하도록 도와준다면 적응적인 정서도식으로 재구성하여 PTSD 증상 수준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수치심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말이 경청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수치심을 이야기할 때 상담자가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치심과 PTSD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정서를 활용하여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환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대처를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여 완화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체로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여겨져 왔다(노은영, 권현용, 2019; Folkman & Lazarus, 198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표현하는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반복적인 정서수용 경험을 통해 고통스러운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욕구와 소망을 발견하여 유사한 자극에 대한 둔감화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변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김영근, 김창대, 2015).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한 정서들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한 정서들을 억압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여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내적 정서에 다가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전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양육적인 기능을 점차 발달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Greenberg & Paivio, 1997; Tull et al., 2007). 이는 낮은 부모애착 수준이 형성된 사람이라도 상담에서 정서를 잘 다룬다면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여도 건강히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애착 수준이 낮고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한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잘 다루어 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정서지향적 상담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내담자는 정서지향적 상담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표현해봄으로써 정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즉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을 키워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을 통해 발달된 대처방식으로 인해 대인간 외상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TSD 증상이 심각하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상담자와의 안전한 치료적 관계 안에서 내담자의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잘 다루었을 때 대인간 외상과 관련된 PTSD 증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편의표집을 통해 자료수집을 진행하여 연구대상이 경상도 지역에 편향된 결과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과 관련 없이 실시한 설문조사였지만 참여한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에서 남자 대학생(24.6%)과 여자 대학생(75.1%)이 큰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Richards et al., 1989)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간의 역동이

달라 성별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남자 대학생 표본을 더 수집하고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부애착이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로 척도상의 점수는 같으나 개인마다 나타나는 PTSD 증상과 양상이 각기 다른데 이를 추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직접 인터뷰하거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과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는 있었으나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단독적인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인간 외상사건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라 추정하여 서술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인간 외상사건의 특수성이 정확한 원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인간 외상사건과 비대인 외상사건의 두 상황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정서기반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

-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민정, 조현주 (2021). 애착외상과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8(1), 71-98.
- 강보운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분노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강성록, 양재원 (2015). 정서접근적 대처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사관학교 생도표본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2), 455-475.
- 권희선, 한기백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스트레스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 155-183.
- 기효정, 홍혜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3), 85-99.
- 김남연, 양난미 (2012).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309-2328.
- 김민정 (2016). 부·모애착과 초등 고학년 아동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김소연, 김선미, 김보영, 양은주 (2015). 대처방식과 외상 후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195-223.
- 김시형, 권은비, 이동훈 (2019). 대학생의 애착 유형, 지각된 사회적 지지,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779-807.
- 김시형, 이동훈, 최준섭, 이도영 (2018).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와 부애착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301-1326.
- 김영근, 김창대 (2015).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수용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학연구*, 16(6), 1-23.
- 김지은 (202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1417-1437.
- 김현아, 장혜인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257-275.
-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3-1022.
- 노은영, 권현용 (2019). 중년기 여성의 가족건강성 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2), 399-414.
- 문예은, 이주연 (2018).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상호작용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6(1), 59-74.
- 박경은, 김선영 (2019). 대인 외상적 폭력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적응 과정: 아동청소년기 대인 외상 경험과 대학 입학 후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671-700.
- 박은아 (2015). 성인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 다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7(1), 263-288.
- 배미향, 조영아 (201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49-1870.
-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18(1), 127-137.
- 서미아, 정선미, 이성아 (2016). 정서안정성 및 정서조절력과 부-자녀 애착 관계에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 *가족과 가족치료*, 24(3), 361-384.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 서영주, 하오현, 김영근 (2020). 애착외상과 심리적 수용의 관계: 정서기반대처(정서인식, 정서처리,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4(1), 1-16.
- 선영운 (2016). 아동의 모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49-80.
- 소찬은, 한세영 (202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3), 67-86.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송승훈, 김교현, 이홍석, 박준호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 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대학생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9(2), 69-95.
- 심명자 (2020). 내담자의 정서인식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와 영성의 조절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 심종은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심종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안숙영 (2006).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안현의 (2007). 복합외상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성별에 따른 외상관련 정서가 PTSD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5), 2363-2378.
- 안현의, 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 양영미 (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오유진 (2006). 새터민의 외상경험과 수치심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원강연, 김정규 (2019).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5(2), 135-153.
- 유지현 (2006).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정서상태,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윤희옥, 이인숙, 이지연 (2010). 여고생의 정서 표현 갈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1(2), 525-538.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310.
- 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40(4), 581-591.
- 이서란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에영, 김영근 (2020).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 정서접근적 대처와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17-1439.
- 이정아, 박경 (2019). 대인간 외상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수치심, 경험회피와 PTSD 증상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6(2), 75-99.
- 이정애, 정영인 (2018). 청소년의 부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 교정연구, 28(1), 81-110.
- 이지영 (2007). 소방대원의 정서지능, 적극적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화연 (2006). 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갈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은영, 신희천 (2014).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1), 183-194.
- 지은혜, 조용래 (2015). 외상경험 대학생들의 외상관련 부정적 인지와 정서조절곤란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5(1), 195-212.
- 최문정 (2006). 아동의 부, 모,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홍지선, 김수임 (2017). 국내 수치심 연구 동향: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133-158.
- Allaman, J. D., Joyce, C. S., & Crandall, V. C. (1972). The antecedents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tendencies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Child Development*, 43(4), 1135-1160.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 Psychiatric Publishing.
- Allen, J. (2018).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London: Routled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stadter, A. B., & Vernon, L. L. (2008). Emotional reactions during and after trauma: A comparison of trauma typ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6(4), 391-408.
- An, Y., Yuan, G., Liu, Z., Zhou, Y., & Xu, W. (2018). Dispositional mindfulness mediates the relationships of parental attachment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cademic burnout in adolescents following the Yancheng tornado.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9(1), 1472989.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drews, B. (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2), 277-28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tes, K. M. (2005). *Moderators for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human service professionals: The role of emotional,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Minneapolis, US.
- Benoit, M., Bouthillier, D., Moss, E., Rousseau, C., & Brunet, A. (2010).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level of attachment security and PTSD symptoms following trauma in adulthood. *Anxiety, Stress & Coping*, 23(1), 101-118.
- Besser, A., & Neria, Y. (2012). When home isn't a safe haven: Insecure attachment orientation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TSD symptoms



- among Israeli evacuees under missile threa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1), 34-4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slau, N., Davis, G. C., Andreski, P., & Peterson, E. (1991).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n urban population of young adul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3), 216-222.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92-100.
- Cassidy, J. (200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clinical applications* (pp. 3-22). New York: Guilford Press.
- Cibich, M., Woodyatt, L., & Wenzel, M. (2016). Moving beyond "shame is bad": How a functional emotion can become problematic.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9), 471-483.
- Cloitre, M., Miranda, R., Stovall-McClough, K. C., & Han, H. (2005). Beyond PTSD: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 predictors of functional impairment in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Behavior Therapy*, 36(2), 119-124.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13(5), 405-419.
- Crawford, T. N., Shaver, P. R., & Goldsmith, H. (2007). How affect regulation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neuroticism.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9(2), 95-109.
- Cusack, K. J., Grubaugh, A. L., Knapp, R. G., & Frueh, B. C. (2006). Unrecognized trauma and PTSD among public mental health consumers with chronic and severe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2(5), 487-500.
- DePrince, A. P., Chu, A. T., & Pineda, A. S. (2011). Links between specific posttrauma appraisals and three forms of trauma-related distre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3(4), 430-441.
- De Francis, V. (1969). *Protecting the child victim of sex crimes committed by adults*. Denver, Colorado: American Human Association.
- Ehring, T., & Quack, D. (2010).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in trauma survivors: The role of trauma type and PTSD symptom severity. *Behavior Therapy*, 41(4), 587-598.
- Elwood, L. S., & Williams, N. L. (2007). PTSD-related cognitions and romantic attachment style as moderators of psychological symptoms in victims of interpersonal trauma.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10), 1189-1209.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1-171.
- Feiring, C., Taska, L., & Chen, K. (2002). Trying to understand why horrible things happen: Attribution, shame, and symptom development

- following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7(1), 26-41.
- Finn, J. (1985). The stresses and coping behaviors of battered women. *Social Casework*, 66(6), 341-349.
- Finzi, R., Har-Even, D., & Weizman, A. (2003). Comparison of ego defenses amo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omprehensive Psychiatry*, 44(5), 388-395.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4). Coping: Pitfalls and promise. *Annual Review Psychology*, 55, 745-774.
- Frazier, P., Anders, S., Perera, S., Tomich, P., Tennen, H., Park, C., & Tashiro, T. (2009). Traumatic event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450-460.
-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3(1), 23-34.
- Greenberg, L. S., & Paivio, S. C. (1997). *Working with the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7).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e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Grossmann, K., Grossmann, K. E., Kindler, H., & Zimmermann, P. (2008). A wider view of attachment and exploration: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security from infancy to young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57-879). New York: Guilford Press.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Hunt, N., & Evans, D. (2004). Predicting traumatic stress using emotional intellige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7), 791-798.
- Katz, C. L., Pellegrino, L., Pandya, A., Ng, A., & DeLisi, L. E. (2002). Research on psychiatric outcomes and interventions subsequent to disast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iatry Research*, 110(3), 201-217.
- Kemp, A., Green, B. L., Hovanitz, C., & Rawlings, E. I. (1995).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Shelter and community sam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1), 43-55.
- Kessler, B. L., & Bieschke, K. J. (1999). A retrospective analysis of shame, dissociation, and adult victimization in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35-341.

- Kilmer, R. P. (2006).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in children.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264-288). London: Routledge.
- Kim, S., Thibodeau, R., & Jorgensen, R. S. (2011). Shame, guilt, and depressive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7(1), 68-96.
- Lee, R. G., & Wheeler, G. (2013). *The voice of shame: Silence and connec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Gestalt Press.
- Lewis, H. B. (1987).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93-132). New York: Guilford Press.
- Lewis, M. D., Haviland-Jones, J. M., & Barrett, L. F. (2008). *Handbook of emotions*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Horesh, N., Eilati, I., & Kotler, M.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mental health in extreme life-endangering condi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5), 831-842.
- Nader, K., & Pynoos, R. (1990). Children's PTSD reactions one year after a sniper attack at their school.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11), 1526-1530.
- Owen, M., Esterbrooks, M., Chawe-Lansdale, L., & Goldberg, W. A. (1984).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the stability of attachments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55(5), 1984-1901.
- Parke, R. D., McDowell, D. J. (1997). Toward an expanded model of emotion socialization: New people, new pathways. *Psychological Inquiry*, 9(4), 303-307.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65-376.
- Pitts, V. L., & Schwartz, M. D. (1997). Self-blame in hidden rape cases. In M. D. Schwartz (Ed.), *Research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Methodological and personal perspectives* (pp. 65-70). London: Sage Publications.
- Richards, L. K., Bengyson, V. L., & Miller, R. B. (1989). The generation in the middle: Perception of change in adult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K. Kreppner, & R. M. Lerner (Eds.), *Family systems and life-span development* (pp. 341-366).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thbaum, B. O., Foa, E. B., Riggs, D. S., Murdock, T., & Walsh, W. (1992).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455-475.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lovey, P., Bedell, B. T., Detweiler, J. B., & Mayer, J. D. (1999). Coping intelligently: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ping process. In C. R. Snyder (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pp. 141-16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affe, K. K., & McCanne T. R.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sexual, physical, and combined sexual and physical abuse to adult victim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ild Abuse and Neglect*, 22(11), 1119-1133.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 Stanton, A. L., Kirk, S. B., Cameron, C. L., & Danoff-Burg, S. (2000). Coping through emotional approach: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150-1169.
- Tangney, J. P., Barlow, D. H., Wagner, P., Marschall, J. E., Borenstein, L. K., Sanftner, J., Mohr, T., & Gramzow, T. (1996).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80-798.
- Tangney, J. P., Dearing, R. L., Wagner, P. E., & Gramzow, R. (2000).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3*.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angney, J. P., & Fischer, K. W. (1995).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Taylor, A. B., MacKinnon, D. P., & Tein, J. Y. (2008). Tests of the three-path mediated effect.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41-269.
- Tull, M. T., Barrett, H. M., McMillan, E. S., & Roemer, L. (2007).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ehavior Therapy*, 38(3), 303-313.
- Watson, S. B., & Haynes, S. N. (2007). Brief screening for traumatic life events in female university health service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7(2), 261-282.
- Wiklander, M., Samuelsson, M., & Asberg, M. (2003). Shame reactions after suicide attempt.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 17(3), 293-300.
- Wilson, M. (2000). Creativity and shame reduction in sex addiction treatmen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7(4), 229-248.

원 고 접 수 일 : 2022. 12. 2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3. 17

게재결정일 : 2023. 03. 31

## The Influence of Father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TSD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based Coping Methods and Shame

Hyoju Gwon

Inje University

Master Student

Minsoo Kim

Inje University

Bachelor's Degree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emotion-based coping methods and shame have a double-mediated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TSD symptoms in university students. A national survey of college students was conducted, and 373 people who indica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trauma experience questionnaire, IES-R-K, IPPA-R, EACS, TMMS, and TOSCA-3 were used.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motion-based coping method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TSD symptoms. Second, sham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TSD symptoms. Third, emotion-based coping method and shame had a significant double-mediated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TSD symptoms. Finally, the counseling implications, stud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father attachment, interpersonal trauma, PTSD, emotion-based coping methods, shame